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 영어교육과 문화

- English Education and Culture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민 이 선

# 영어교육과 문화

- English Education and Culture -

201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민 이 선

# 영어교육과 문화

- English Education and Culture -

지도교수 정희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민 이 선

민이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류 관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장 용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희 정 (인)

201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1
I.서론.....	3
1.1. 연구의 필요성.....	3
1.2. 연구의 제한점.....	4
II.이론적 배경.....	6
2.1. 언어와 문화.....	6
2.1.1 언어.....	6
2.1.2 문화.....	7
2.1.3 언어와 문화의 관계.....	10
2.1.4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필요성.....	11
2.2 제7차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13
2.2.1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13
2.2.2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14
2.3 선행연구.....	17
III.연구방법 및 절차.....	19
3.1. 연구의 목적.....	19

# 목 차

3.2. 연구의 방법.....	19
3.2.1 교과서.....	20
3.2.2 설문지.....	22
IV. 연구결과 및 논의.....	24
4.1. 교과서 분석.....	24
4.1.1 문화소재에 따른 영어교과서 분석.....	24
4.1.2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른 영어교과서 분석.....	26
4.2. 설문지 분석.....	28
4.2.1 학생 설문지 분석.....	28
4.2.2 교사 설문지 분석.....	32
4.3. 논의.....	37
V. 결론 및 제언.....	40
5.1 결론.....	40
5.2 제언.....	41

# 표 목차

<표 1>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변천과정 및 특징	14
<표 2> 중학교 영어교과서 분석 대상	20
<표 3> 중학교 영어교과서 소재 분석표	21
<표 4> 중학교 영어교과서 소재 분석표	24
<표 5> 문화소재별 빈도 분석 표	26
<표 6>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른 빈도 분석 표	27
<표 7> 학생 기초조사 표	29
<표 8> 영어권 국가에 대한 의식조사 표	30
<표 9>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 표	30
<표 10> 문화교육 자료 표	32
<표 11> 교사 기초조사 표	33
<표 12> 영어권문화에 대한 인식 및 교수 실태	34
<표 13>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어권문화의 내용	35
<표 14>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 표	35
<표 13> 문화교육 자료 표	36



# 그림 목차

<그림1> Moran의 문화방산 .....	9
-------------------------	---

# ABSTRACT

## English Education and Culture

Min Yi-sun

Advisor : Prof. Hui-jung Jung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hen we study English is to learn the culture of English-speaking countries. Although it has emphasized by the National Curriculum for many years, I thought it was not enough yet.

So, I've decided to examine the way cultural contents (English-speaking countries') are presented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the guidelines of the revised Seventh National Curriculum, and cultural understandings of students and teachers. Fifteen English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and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for this research-one for teachers and the other for students. The findings show us important applications.

First of all, the national curriculum has emphasized cultural contents, but teachers and students aren't concerned about them much. Also, they said that it is not easy to find ways to learn cultural things from 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y just rely on the media. The materials from the media could be very useful and various, but it could also be very dangerous if it is not exact.

Secondly, most of students and teachers still think that cultures of Inner Circle are more important than other English-speaking countries. They

checked the questionnaire that was about the priority among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the result proved that fact. The textbooks, however, have not only cultures of Inner Circle but also general cultures. Also, the rate of general cultures is getting more. So, the attitudes of teachers and students to cultural contents should be extended.

Lastly, the contents of cultural things should be extended, too. Some contents such as school and family are enough, but other contents such as laws and historical event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extbook writers should consider this and they should include various cultural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간·공간적 제약이 무의미해지면서 국제화 되어가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즉,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사회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 국가들이 공통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국제적 필요성에 의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가 ‘국제언어(international language)’로서의 중요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세계의 많은 언어 중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인정 받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이미 국제기구 공식 언어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경제·교육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용어의 80% 이상이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개인의 미래를 위한 성장을 위해서도 영어 능력은 절실히 요구된다. (박미란, 2010)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영어 교육은 오랫동안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영어의 기능적인 측면에 치중하는 암기식 교육에만 치중하여 영어권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최광화, 2010) 이러한 점은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다. 다른 EFL 국가보다 많은 시수와 교육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한마디 못하는 상황은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매우 큰 질타를 받게 하였다. 하지만 공교육의 영어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의 학자들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Byram(1989), Byram, Morgan and Colleagues(1994), Seelye(1981)등은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에 대해 매우 중시하였는데,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므로 문화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언어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Brown(2001)은 영어를 교수함에 있어 영미 문화를 배제한 외국어 교육이란 불가능하며, 제2언어 습득은 언어 교육적 측면 뿐 아니라 제2의 정체성(the second identity)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영어 교재에서는 문화 내용을 단순한 ‘Culture corner’, ‘Culture Tip’등의 이름으로 하여 ‘쉬어가는

코너'정도로 간단하게 제시하였고, 제시되는 문화적인 내용 역시 영·미권 문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곤 했다. (이은주,200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교사들이 가장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교과서 자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인식역시 문화교육을 해야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 속에서는 학교 내 영어 교육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매우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영어와 영어권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학교에서의 영어수업시간 밖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상위학교 진학 및 사회적 영향등으로 인해 영어수업시간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교사들의 책임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종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요소를 지도 소재에 통합하여 언어활동에 문화 요소가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라는 영어 교과 목표를 설정하여 영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화교육을 강조하였고, 문화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고 받아들이며 교류하고, 국제화 시대에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학생과 영어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영어수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과서 내의 문화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현재 개정된 교과서를 평가하고, 앞으로 영어교사들의 문화교육 지도방향과 향후 개정될 교과서의 문화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에서는 총 25종의 교과서 중 5종을 분석한 것이므로 제외된 20종의 교과서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
- (2) 본 연구는 보조교과서(Activity Book)와 CD등 보조교재는 제외한 교과서만을

분석한 내용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전남·광주의 영어교사와 전남 광양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영어교사와 학생들의 인식과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4) 본 연구자의 영어권문화에 대한 연구내용은 종전의 영미권 문화에 대한 결론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언어와 문화

#### 2.1.1 언어

‘언어’란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의 경험과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언어 속에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배경, 사고방식, 생활방식, 사회적 환경, 행동 양식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언어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최광화(2010)는 언어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사회적 규약’으로 정의하였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연구-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를 통해 언어는 자의적인 음성 장치의 체계로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한 부분이며, 언어는 문화의 단순한 구성 요소가 아니라 그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문화를 축적하고 발전시키며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언어를 문화를 발전시키고 전승시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정의하였다.

언어의 기능에 대해 Brown(2001)은 더욱 세분화시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Language is systematic.
- 2) Language is a set of arbitrary symbols.
- 3) Those symbols are primarily vocal, but may also be visual.
- 4) The symbols have conventionalized meanings to which they refer.
- 5) Language is used for communication.
- 6) Language operates in a speech community or culture.
- 7) Language is essentially human, although possibly not limited to human.
- 8) Language is acquired by all people in much the same way; language and language learning both have universal characteristics.

즉, 언어는 체계적이며, 자의적인 상징으로서 주로 음성적으로 전달이 되며, 관습

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가장 주된 기능은 의사소통이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Kramersch(1997)은 언어를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문화를 규정하고 조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이해하였다.

Pinker(2007)의 *The Language Instinct*에서 언어라는 것은 유아기때 기저에 있는 논리적인 지각없이 자발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복잡하고 특성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언어는 무의식(subconsciousness)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특정한 것 순으로 발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Language is a complex, specialized skill, which develops in the child spontaneously, without awareness of its underlying logic, is qualitatively the same in every individual, and is distinct from more general abilities to process information or behave intelligently.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는 단어 자체의 보편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학자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지만 인간이 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며, 매우 체계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2.1.2 문화

인간은 한 개인으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집단과는 구분되는 특유의 정체성 및 생활습관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에 대한 개념은 과거 일종의 예술작품적인 좁은 범위에서 정의되었다면, 현재는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문화'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몇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였다.

먼저, 문화를 삶의 한 방식으로 규정한 학자로는 Rivers(1981)가 있다. 그는 문화를 삶의 방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를 내렸다.

The child growing up in a social group learns ways of doing things, ways of expressing himself, ways of looking at things, what things he should value and what things he should despise or avoid, what 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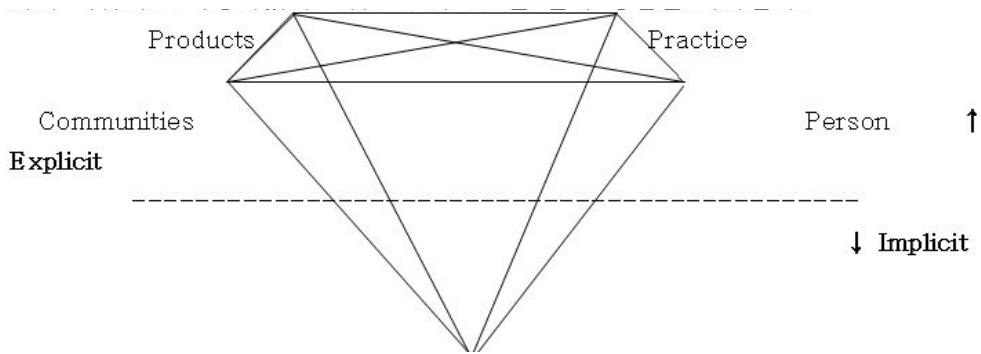
expected of him and what he may expect of others. These attitudes, reactions, and unspoken assumptions become part of his way of life without his being conscious of them.

즉, 한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자라면서 행동하고, 표현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하는지, 혹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하는 것과 그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행동, 반응 그리고 가정하는 것들 모두가 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다.

Rivers(1981)의 의견에 문화의 상대성을 덧붙인 학자가 Brown(2001)이다. 그는 '문화'란 사회를 통해 획득된 모든 것을 문화라고 정의하며, 삶의 한 방식이자 집단의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화는 자체로서 고유하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하거나 열등한 문화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Culture is a way of life. Culture is the context within which we exist, think, feel, and relate to others. It is the "glue" that binds a group of people together.

문화의 비가시적인 면을 강조한 학자도 있다. Moran(2001)은 문화를 산물, 관습, 관점의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차원에서 보았다. 여기에 문화 속의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집단과 인물을 추가하여 총 다섯 가지를 연관시켜 형상화하였다. 즉, 문화란 인간 집단이 진화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공유된 산물과 공유된 관습을 구성하며, 세상에 대한 공유된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문화 관점의 분석 가능한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빙산(Levine et al., 1987; Weaver, 1993; Brake et al., 1995)에 빗대어 정의하면서 빙산의 극히 일부분만이 가시적이지만 대부분의 빙산은 바다 표면의 아래쪽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문화 역시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s), 관습(Practice), 개인(Persons), 공동체(Communities) 그리고 약간의 관점(Perspectives)의 일부분만이 눈에 보일 뿐 많은 관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은주(2009)역시 이를 인용하여 문화현상의 산물, 관습, 관점, 공동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며, 알고 있는 것이라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기저에 깔려 있는 관점은 극히 제한적이라 파악하기 어렵다고 규정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문화 빙산을 나타낸다.



<그림 1> 문화 빙산(Culture as Iceberg)

Matsumoto(2000)는 문화의 가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는 각각의 것을 합친 것 보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문화는 구성원들의 태도, 가치, 신념, 규범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그룹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동적인 규칙체계이며,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화’를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Banks(1991)나 Freire(1973), Giroux(1988)은 문화를 힘, 영향력, 권위, 지배력 등과 같은 힘의논리에 의해 경쟁하는 집단이나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활동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내부자와 외부자,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특권층과 그렇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집단이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라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에 대한 개념 역시 추상적이며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즉, ‘문화’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다. 즉,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다. (Brown, 2001)

둘째,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다. 즉, 개인이 태어났을 때에는 ‘문화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성

장해 가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셋째, 문화는 유동적이다. 문화란 특정한 사회 맥락 안에 구성되어 있고, 이 세계에서 공유된 관점에 기초하여, 공유된 산물과 관련되어 있는 공유된 관습을 이루며, 한 그룹의 사람들이 진화하는 삶의 방식이며, 문화의 진화하는 성격을 잘 나타내었다. 또한 문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사회의 문화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Moran, 2001., Matsumoto, 2000.)

넷째,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문화’라 함은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환경에 맞춰서 생기고 발전하는 집단의 삶의 방식이다. 즉, 문화는 그 집단에게 가장 알맞도록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 공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우수한 문화, 열등한 문화라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Brown, 2001.)

### 2.1.3 언어와 문화의 관계

위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언어와 문화는 매우 관련도가 높으며,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역시 많은 언어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Brown(2001)은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인 동시에 문화 역시 언어의 한 부분이라고 정리하면서,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A language is a part of a culture and a culture is a part of a language: the two are intricately interwoven such that one cannot separate the two without losing the signification of either language and culture. The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except for specialized, is instrumental acquisition of a second culture.

즉, 그는 언어와 문화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에 속하며,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2언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제2언어의 문화 역시 습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 상대성 가설(Language Relativity Hypothesis) 역시 'Language does not exist apart from culture' 즉, 문화와 언어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위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Rivers(1981)역시 언어는 문화에 깊게 흡수(the culture is deeply embedded.)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으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내용 역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언어란 구성원이 사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전달할 때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는 이러한 상황에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서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울 때 문화적 의미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는 상호보완적 혹은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필수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영어교사들에게 있어서 수업 내에서의 제2언어권의 문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 2.1.3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필요성

앞에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Jeperson(1956)은 외국어 교육의 목적을 사상과 제도, 문학과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신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아 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Chastain(1976)은 언어의 이해만으로 화자의 행동을 100%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적인 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학자들은 각자 연구 결과를 토대로하여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화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문화 교육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Seelye(1974)는 타문화권의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이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지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이 타문화권의 문화적으로 조건화된 행동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기본적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필요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둘째, 언어와 사회적인 변이들을 통합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관습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적으로 함축된 내용을 학생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함축에 따라 언어가 갖는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학생들이 의미함축을 알아야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섯째, 여러 가지 문화의 특성을 알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문화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도서관이나 매스미디어(mass-media), 주관적인 관찰등을 통해 목표문화에 대한 정보를 조직할 능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문화를 배움으로써 목표문화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목표문화권 구성원에 대한 정의적인 영역이 발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 교육의 영역 중에서도 '문화능력(cultural competence)'에 대한 강조를 한 학자는 Krasnick(1984)였다. 즉, 외국어 교육의 목표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있다면 문화 학습은 반드시 언어 학습에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한 언어의 단어나 그 어휘의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외국어 교육의 초기단계부터 함께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화와 외국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학자는 Henderson(1980)을 들 수 있다. 그는 문화를 대문자'C'와 소문자'c'로 구별하고, 대문자'C'에 해당하는 것을 예술, 철학, 문학 등 한 사회 안에서의 개인이나 전체 구성원의 뛰어난 업적에 관한 것이라 칭했다. 그리고 후자인 소문자'c'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관습, 사상, 가치관 등 그 지역 사람들과 타문화권의 국민들과의 문화적 특징을 구별짓는 행동양식(behavior pattern)과 생활양식(life style)을 포함시키면서, 대문자'C'보다는 소문자'c'에 포함되는 문화 내용을 외국어 학습 초기에 가르쳐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Chastain(1976)역시 대문자'C'에 해당하는 문화는 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물 혹은 독특한 개인의 작품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등을 다루는 것으로, 소문자 'c'에 대해서는 생활양식 위주의 문화를 포함시켜, 외국어 학습 시간의 문화 교육에 있어서 소문자'c'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조하였고, 대문자'C'에 해당하는 내용은 상급 외국어 시간에 다루어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문화교육은 반드시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 2.2 제 7차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 2.2.1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규정하여 확정·고시한 의도적이고 문서화된 계획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즉,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위한 하나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교수요목기를 거쳐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까지 여덟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은 개정되어 왔다. 특히 이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로 설정하고, 그 하위 목표로

평생학습자로서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얻는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며,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 전의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이 아닌 수시 개정으로 처음 제시되는 교육과정으로 지식 정보화, 다매체·다문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개인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도입 및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시행의 문제점 개선이라는 점이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첫째,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 수준별 수업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학습 내용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 급 및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선택 과목 간에 진로별 특성을 반영한 계열성을 강화하

였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및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구체화 및 강화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관련 내용을 개선하였다.

## 2.2.2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차례의 교육과정의 개정 속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졌다.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명시된 시점은 제 4차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언어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를 ‘외국문화 이해 증진’이라는 정의적 목표보다 우위에 두어 크게 중요성을 두지는 않았고, 제 5차 교육과정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영어 교과목의 목표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이 시기 역시 인지적 목표에 정의적 목표를 종속시키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이 동등해 진 것은 바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였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문화를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을 영어 교과목의 목표로 삼아, 전자와 후자를 동등하게 다루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문장의 길이로 구분하면서 문화 항목을 언어재료 내에 포함,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된 ‘문화’적인 요소들이 교과서와 수업시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정 영어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소재에 통합하여 제시하여 교과서를 만들 때 각 단원의 언어활동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포함된 소재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 내용을 세분화하여 실제 영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교육과정별로 문화교육 변천과정 및 특징을 <표 1>에서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년도	특징
교수요목 기	1946 ~ 1954	· 교과목별 분과주의에 입각한 교과 활동 · 영어의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최소 교과내용과 지도방법 제시
제1차 교육과정	1954 ~ 1963	· 교과분과주의 지양, 통합원리에 의한 교육과정의 틀 잡힘 ·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일반목표 설정

제2차 교육과정	1963 ~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률적, 자주적인 인간상 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사고 강조</li> <li>· 간결한 표현과 논리적인 체계</li> </ul>
제3차 교육과정	1973 ~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체계의 구조화와 탐구학습을 강조하는 학문중심 교육과정</li> <li>· 문법 설명 위주의 수업진행이라는 비판 받음</li> </ul>
제4차 교육과정	1981 ~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적인 인간중심 교육과정 표방</li> <li>· 국제화, 개방화에 맞추어 생활영어 구사력 신장 강조</li> <li>· 기존의 언어 기능적 목표와 언어의 외적 목표를 그대로 반영</li> <li>· 언어기능 배양이라는 인지적 목표를 '외국문화 이해 증진'이라는 정의적 목표보다 우위에 둠</li> </ul>
제5차 교육과정	1987 ~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문화를 수용하고 우리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영어 교과의 목표로 삼음</li> <li>· 정의적 목표가 인지적 목표에 종속되는 관계로 설정</li> </ul>
제6차 교육과정	1992 ~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과 외국문화를 수용하여 우리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을 영어 교과의 목표로 삼아, 전자와 후자를 동등하게 다루며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li> <li>·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서 탈피하여 개념 기능 교수요목을 도입</li> </ul>
제7차 교육과정	1997 ~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설정 및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li> <li>·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li> <li>· 재량활동의 신설, 확대 및 교과별 학습량 수준의 조정</li> <li>·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발달, 정보능력 배양</li> <li>·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문장의 길이로 구분하면서 문화 항목을 언어재료 내에 포함,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li> </ul>

<표 1>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문화교육 변천과정 및 특징

다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부각된 '문화'요소가 실제 교과서나 교수·학습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 요소를 보다 강화하였다. 타 문화권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소



통 방식과 그에 관련된 생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사람들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는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어휘 등과 연계되어 교재 집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 학생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습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교육 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 상호 작용에 적합한 내용, 문화 이해에 적합한 내용이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소재'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이렇듯 2009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부터 적용된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요소가 소재란에서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보다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제시된 문화요소의 강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첫째, 문화 교육과 언어 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소재 항목에 문화를 통합·제시함으로써 교과서를 집필할 때 각 단원의 언어활동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소재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과서를 집필할 때 반영할 수 있는 소재 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문화에 관련된 항목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생활양식으로 분리하여 소재 항목에 포함시켰는데, 우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의 경우,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소재 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 재료 중 문화 항목으로 제시된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문화'는 너무 광범위하여 실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된 생활양식과 언어문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범위를 좁혀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 교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문화와 영어교육이 분리되어서 마치 영어교육에 문화 요소가 부가적으로 얹혀 있는 것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와 고나련된 학습 목표가 교과서에 분명히 제시되도록 하고,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문화적 내용과 학습 활동이 교과서 및 교수·학습 활동에

제시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국과 교류가 많은 최근의 상황에 맞추어 영어권 문화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타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에 관한 내용을 영어권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로 확대하였다. 즉,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에서 더 나아가 타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적·문화적 차이 그 범위를 넓혀 수정하였다.

## 2.3 선행연구

이제까지 영어교과서 내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고찰 및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특히 문화적인 요소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교과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교과서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고자 영어 문화 지도와 관련된 교과서 분석의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문화지도와 관련한 논문에서는 교과서분석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원희(2010)는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반영된 문화내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13종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25종에 나타나 있는 문화내용을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의 세 가지로 나누는 문화유형별 구분 및 한국문화, 영미 및 기타국가문화, 한국 영미 비교대조문화, 불특정 보편문화의 네 항목으로 나누는 문화배경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전체 및 항목별로 분석하고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또한곽정순(1993)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소재 분석 연구’에서 중학교 5종 교과서를 교과서별, 학년별 소재에 나타난 지리적 상황별로 문화적 소재를 분석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채지영(2004)은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한 문화 지도 방안’에서 13종 교과서의 읽기 부분을 분석하여 문화내용을 주제별, 국가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와는 달리 문화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학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를들어 채지영(2004)은 문화교육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업중심의 활동을 중시하였다. 즉, 문화교육은 따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언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은주(2009)의 경우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화 소재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문화지도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문

화 관련 소재를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일반적인 소재를 문화 소재로 제시하여 교과서 안에 문화가 녹아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문화지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교사연수를 지원해야 하며, 타교과와의 통합수업을 통해 문화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원희(2010)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첫째, 행동문화로의 지나친 편중은 일부 하향 조절되어야 하며, 둘째, 불특정 보편문화의 반영비율이 낮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셋째, 한국 및 영미 비교대조문화에 관한 내용을 보다 더 많이 제시하여야 하며, 교사 역시 문화지도 시 타문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현재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 5종을 각 학년별로 총 15권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나와있는 문화소재를 분석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더 좋은 문화지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문화의식 조사 설문 및 문화지도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해 더 깊은 연구를 해보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3.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현재 영어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권문화에 대한 문화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앞으로 영어교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문화교육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영어수업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수업 자료인 교과서를 분석하여 교과서에 문화적인 요소가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가 수업시간을 통해 교과서에 제시된 문화적 내용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에 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현재 수업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학생과 교사의 영어권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 (3)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해 문화적인 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4) 위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3.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약 1여년간의 기간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문헌 및 서적,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지도교수님의 조언을 받아 평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문화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아웃라인(outline)을 잡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개정된 1학년 부터 3학년까지의 5종 교과서를 선별하여 분석할 기준을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정하고, 선행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학생과 교사의 문화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만들어 이를 실시하였다. 그 후, 총 15종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설문지 역시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영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 3.2.1 교과서

본 연구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중학교 25종의 영어교과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영어교과서 5종을 분석하였다. 각 교과서는 임의로 알파벳을 부여하여 알파벳 A~E로 표시하여 사용하였으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5종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총 125단원을 분석하였다.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분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교과서명	단원수
A	1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1	10
	2n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2	10
	3r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3	10
B	1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1	10
	2n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2	10
	3r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3	10
C	1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1	11
	2n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2	11
	3r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3	11
D	1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1	12
	2n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2	12
	3r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3	12
E	1st Grade	Middle School English 1	12
	2n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2	12
	3rd Grade	Middle School English 3	12

<표 2>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 대상

첫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7차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문화소재를 분석하기 위해 Rivers(1981), Nostrand(1978), Byram(1994)이 제시한 문화 유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에 알맞도록 재구성하기 위하여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임의로 재구성하였다. 이 재구성된 문화기준표를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3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재구성된 문화 유형으로는 크게 예술 및 예술품, 개인, 사회, 국가정체성 및 역사, 과학 및 기술, 기관 등 총 6가지의 큰 카테고리 속에 여러 세부 소재로 나누었다. 재구성한 문화유형 기준표는 <표

3>와 같다.

본 연구자는 문화소재에 따라 교과서 분석 시, 각 기능별로 너무 다양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읽기(Read)’부분의 소재를 기준으로하여 분석하였다.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1-2	건축물
	1-3	음악
	1-4	언어
	1-5	음식
	1-6	영화
2. 개인	2-1	가치관
	2-2	진로 · 적성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2-4	자기소개
	2-5	운동 · 건강
	2-6	정서함양(이야기)
	2-7	생활습관
	2-8	위인, 전기
	2-9	탐험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3-2	학교생활
	3-3	직업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3-5	사회 제도 · 규율
	3-6	고민 · 고민상담
	3-7	안전 · 안보의식
	3-8	자원봉사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4-4	전통문화 소개
	4-5	국가 · 도시 소개
	4-6	생활양식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5-2	과학자 · 발명(품)
	5-3	환경
	5-4	유기체(동물 · 식물)
	5-5	정보통신
	5-6	미래사회
	5-7	우주 · 지구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6-2	복지·종교단체
	6-3	공공기관

<표 3> 중학교 영어교과서 소재 분석표

둘째로는, 대부분 종전의 연구는 영·미문화를 비교 혹은 대조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어를 영어권만의 언어가 아니고 세계어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교육의 목표 역시 원어민(native speaker)의 수준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영어권문화의 범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C1~C5를 영어권 문화의 범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함께 하였다.

C1 : Inner Circle에 포함되는 국가들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가 이에 속한다.

C2 : Outer Circle에 포함되는 국가들로 영어를 모국어는 아니지만 제2언어로 사용하는 국가가 이에 해당되며,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등이 이에 속한다.

C3 : 한국의 문화를 C3로 보았다.

C4 : 영어가 모국어나 제2언어가 아닌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중국, 프랑스 등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에 포함된다.

C5 : 범문화적인 문화를 나타내는 경우가 속한다.

### 3.2.2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어 수업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화교육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영어권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남지역의 학생 120명, 광주·전남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과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인식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한국 중등영어 교사와 영미문화 학습내용의 체계성 및 다양성 연구(2005)에서 정은혁, 민주경이 사용한 설문지를 재구성 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학생용 설문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 세부적인 요소를 함께 물어보았다. 설문지 구성은 ‘학생 기초조사’, ‘영어권 국가에 대한 의식 조사’, ‘문화교육 교수법 및 활동’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설

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교사용 설문지 역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용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세부적인 요소를 함께 물어보았다. 설문지 구성은 ‘중학교 영어교사 기초조사’, ‘중학교 영어교사의 영어권 문화 교수 실태’, 그리고 ‘문화교육 교수법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교과서 분석 결과

#### 4.1.1 문화소재에 따른 영어교과서 분석

각 교과서를 A~E로 명명하고, 각 학년을 -1, -2, -3으로 표시하여 다음의 문화 소재표에 따라 총 15종의 영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1-2	건축물
	1-3	음악
	1-4	언어
	1-5	음식
	1-6	영화
2. 개인	2-1	가치관
	2-2	진로 . 적성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2-4	자기소개
	2-5	운동 . 건강
	2-6	정서함양(이야기)
	2-7	생활습관
	2-8	위인, 전기
	2-9	탐험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3-2	학교생활
	3-3	직업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3-5	사회 제도 . 규율
	3-6	고민 . 고민상담
	3-7	안전 . 안보의식
	3-8	자원봉사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4-4	전통문화 소개
	4-5	국가 . 도시 소개
	4-6	생활양식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5-2	과학자 . 발명(품)
	5-3	환경
	5-4	유기체(동 . 식물)
	5-5	정보통신
	5-6	미래사회
	5-7	우주 . 지구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6-2	복지 . 종교단체
	6-3	공공기관

<표 4> 중학교 영어교과서 소재 분석표

A교과서의 경우 ‘개인’에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여가활동·취미생활과, 이야기를 통한 정서함양부분은 전 학년에 걸쳐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소재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역시 전 학년에 걸쳐 나왔는데 특히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은 학년 초에 배울 수 있는 1단원 혹은 2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B교과서의 경우 ‘개인’, ‘사회’, ‘국가정체성 & 역사’, ‘과학&기술’항목에 대해 각각 9회, 10회, 7회, 6회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 B교과서에서는 어느 한 소재에 치우침 없이 균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C교과서의 경우 ‘개인’과 ‘사회’에 대한 빈도가 각각 14회, 11회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이 다루어졌다. 특히 여가활동·취미생활영역이 총 5회 제시로 가장 많았고, 다른 교과서에 비해 1번 항목인 예술&예술품 항목이 많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D교과서는 다섯가지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은 소재를 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국가정체성 & 역사’, ‘과학&기술’항목에 소재가 중점되어 있으며, 다른 교과서에 비해 5번 항목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였는데, 예를들어 2학년 교과서 7과에서는 ‘Let's Save Inky’라는 제목으로 어린 돌고래를 주인공으로 하여 돌고래가 살고 있는 수질오염 문제를 다루었고, 3학년 교과서 12과에서는 ‘The Polar Bear's Dinner’에서는 북극곰을 의인화 하여 현재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 현상과 기온이상 현상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E교과서에서는 ‘개인’에 가장 큰 비중이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전 학년에 걸쳐 있었으며, 또한 인간관계·예의·예절에 대한 내용이 전 학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각각의 15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표를 <부록 2>에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카테고리별로 빈도수를 정리한 표를 아래 <표 5>로 제시하였다.

	A	B	C	D	E	Total	Pct (%)
1. 예술 & 예술품	4	3	5	4	2	18	8%
2. 개인	19	9	14	14	22	78	36%
3. 사회	8	10	11	8	14	51	24%
4. 국가정체성 & 역사	1	7	3	11	4	26	12%
5. 과학 & 기술	9	6	7	15	6	43	20%
6. 기관	0	0	0	0	0	0	0%

<표 5> 문화소재별 빈도 분석 표

다시 종합해 보면, ‘개인’에 대한 내용이 36%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 혹은 가족을 소개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회’와 ‘과학&기술’이 각각 24%와 20%로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 역시 학교생활의 규칙, 또는 교우관계에 대한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전혀 제시되지 않은 카테고리도 있었다. 기관(정부·반 정부적 기관, 복지·종교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은 다섯 교과서 모두 다루고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사회의 여러 기관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적 기관, 혹은 복지 및 공공기관등에 대한 소재가 부족하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교과서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즉, 앞으로 개정되는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다.

#### 4.1.2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른 영어교과서 분석

4.1.1과 마찬가지로 각 교과서를 A~E로 명명하고, 각 학년을 -1,-2,-3으로 표시하여 앞에서 언급한 C1~C5의 영어권 문화의 범위에 따라 각 빈도와 백분율을

표시한 표이다. C1~C5까지 영어권 문화의 범위를 재 조정한 것은 영어를 영어권만의 언어가 아니고 세계어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교육의 목표 역시 원어민(native speaker)의 수준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영어권문화의 범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C1~C5를 영어권 문화의 범위로 구분하였다. 또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단원들이 한 단원 안에 하나 이상의 문화권을 포함하는 것을 발견하고, 본 연구자는 정확한 계산을 위해 비율로 계산하여 소수점으로 표시하였다. 각 교과서를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부록 3>에 별첨하였고, 아래 <표 6>은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라 분석한 종합표이다.

		C1 (Inner Circle)	C2 (Outer Circle)	C3 (Korea)	C4 (Others)	C5 (Cross -Culture)
A	1	1 (10%)	0 (0%)	0 (0%)	0 (0%)	9 (90%)
	2	0 (0%)	0 (0%)	0 (0%)	2 (20%)	8 (80%)
	3	0 (0%)	0 (0%)	1 (10%)	1 (10%)	8 (80%)
B	1	1 (10%)	0 (0%)	1 (10%)	0 (0%)	8 (80%)
	2	1 (10%)	0 (0%)	1 (10%)	1 (10%)	7 (70%)
	3	1 (10%)	0 (0%)	2 (20%)	7 (70%)	7 (70%)
C	1	2 (18%)	0 (0%)	0.5 (5%)	0 (0%)	8.5 (77%)
	2	0.5 (5%)	0 (0%)	0.5 (5%)	1 (9%)	9 (81%)
	3	0.5 (5%)	0 (0%)	0 (0%)	3 (27%)	7.5 (68%)
D	1	2.5 (21%)	0 (0%)	1.5 (12%)	0 (0%)	8 (67%)
	2	0.5 (4%)	0 (0%)	1 (8%)	0.5 (4%)	10 (84%)
	3	0 (0%)	0 (0%)	1 (8%)	1 (8%)	10 (84%)
E	1	0.5	0	2.5	1	8

	(4%)	(0%)	(21%)	(8%)	(67%)
2	3	0	0	0	9
	(25%)	(0%)	(0%)	(0%)	(75%)
3	0.5	0	3	0.5	8
	(4%)	(0%)	(25%)	(4%)	(67%)

<표 6>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른 빈도 분석 표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문화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5(범 문화권)이다. C5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A교과서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83%, B교과서에서는 약 73%, C교과서에서는 약 75%, D교과서에서는 약 78%, E교과서에서는 약 73%로 모든 교과서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정된 교과서가 소재를 선택할 때, 특정문화에 편중하지 않고, 학생들이 범문화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C5의 범문화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C1~C4를 다루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2가지 이상의 문화권을 함께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교과서의 1학년 4과 'To Mom and Dad'를 보면 '아버이 날'이라는 주제로 미국(C1)과 한국(C3)에서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E교과서의 경우 3학년 4과 'Your Most Embarrassing Moment'에서는 호주(C1)의 문화, 중국(C4), 그리고 프랑스(C4)의 문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이해를 하기 쉽도록 비교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4.2 설문지 분석

### 4.2.1 학생 설문지 분석

학생들의 영어권문화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기위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전남의 한 학교에 있는 1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8문항의 문제를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학생들의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표 7>은 이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기본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이 설문에는 남학생 71명과 여학생 49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최소 3년 이상 영어를 배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영어를 배운 기간은 길지만 20%의 학생은 문화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30%의 학생은 문화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문화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대답한 점을 보아 학생들이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 및 호응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화교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였다. 총 120명의 학생 중, 33명만의 학생이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배웠다고 대답하였고, 신문이나 매스컴,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문화내용을 접하게 되었다는 학생이 73명, 영화나 비디오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이 52명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문화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즉,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학생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학생 기초조사표**

1. 학생의 성별

	남	여
학생 수	71	49
퍼센트(%)	59%	41%

2. 영어를 배운 기간

	0-1	1-3	3-5	5-10	10~
학생 수	5	20	39	47	9
퍼센트(%)	4%	17%	33%	39%	7%

3. 영어권문화에 대한 학습 여부

	많다	조금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학생 수	3	56	24	37
퍼센트(%)	3%	47%	20%	30%

4. 영어권문화에 대한 지식 여부

	아주 잘 안다	잘 안다	잘 모른다	거의 없다
학생 수	0	12	107	1
퍼센트(%)	0%	10%	89%	1%

5. 영어권문화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 경로

	학생 수
신문이나 매스컴, 잡지,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73
영화나 비디오등의 매체를 통해	52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33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23
기타	23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영어권문화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영어권문화를 배워야 한다면 그 중요성을 어느 국가에 두겠냐는 질문에 <표 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42%의 학생들은 미국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22%, 캐나다는 11%였다. 즉, 이를 통해 여전히 학생들의 인식 속에는 Inner Circle의 국가에 대한 내용만을 영어권문화라고 생각하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과 영국 즉, 영·미 문화를 가장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표 8. 영어권 국가에 대한 의식조사 표**

6. 영어권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그 외 (C4)	호주	필리핀
응답 수	508 (42%)	258 (22%)	132 (11%)	98 (8%)	94 (8%)	84 (7%)	26 (2%)

7번 설문항목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아래 <표 9>는 이를 요약한 것이다.

**표 9.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 표**

7. 문화교육에 사용되는 교수법 및 활동

		4점	3점	2점	1점
7-1	읽기 자료	35 (29%)	56 (47%)	34 (28%)	14 (12%)
7-2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	23 (19%)	48 (40%)	30 (25%)	19 (16%)
7-3	그림, 도표제시 후 대화	23 (20%)	52 (42%)	18 (15%)	27 (23%)
7-4	역사적 사실에 대해 토론	23 (20%)	35 (29%)	34 (28%)	28 (23%)
7-5	역할극	22 (18%)	39 (32%)	27 (23%)	32 (27%)
7-6	팝송듣고 빈칸 채우기	27 (23%)	40 (33%)	31 (26%)	22 (18%)
7-7	사이트 제공	26 (22%)	45 (37%)	25 (21%)	24 (20%)
7-8	프로젝트 참여	22 (18%)	46 (39%)	30 (25%)	22 (18%)
7-9	편지 읽고 답장쓰기	18 (15%)	38 (32%)	39 (32%)	25 (21%)
7-10	형성평가 실시	23 (20%)	33 (27%)	31 (26%)	33 (27%)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영어권문화에 관한 사실정보를 영어로 제공하여 읽게 하는 활동과 교사의 직접적인 구두설명에 대해서는 약 60%의 학생이 만족하였고, 62%의 학생은 문화지도 시 그림이나 도표를 제시하여 대화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대답하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교사의 강의(65%)임이 드러났다. 반면, 참여학생의 절반정도의 학생은 팝송을 듣고 빈칸 채우기는 활동, 영어로 된 편지를 읽고 답장하는 활동, 영어권 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토론하는 것, 역할극을 통한 문화수업 등은 좋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전통적인 방법인 강의식 수업과 읽기 수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익숙하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말하기나 듣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에서는 문화교육을 위해 수업시간에 많이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효과성을 질문하였다. <표 10>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문화교육 자료 표

8. 문화교육에 사용되는 자료의 효과성

		4점	3점	2점	1점
8-1	교과서	38 (32%)	40 (33%)	25 (21%)	17 (14%)
8-2	인터넷	32 (27%)	39 (33%)	27 (22%)	22 (18%)
8-3	비디오, CD	38 (32%)	41 (34%)	23 (19%)	18 (15%)
8-4	교사가 제작한 자료	12 (10%)	41 (34%)	44 (37%)	23 (19%)
8-5	TV	40 (33%)	36 (30%)	24 (20%)	20 (17%)
8-6	원어민	31 (26%)	44 (36%)	25 (21%)	20 (17%)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비디오, CD등의 매체와 원어민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는 영어권문화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교사가 제작한 자료에 대해 가장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교과서, 인터넷에 대한 반응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이 비슷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어민시간을 간단한 의사소통만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이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교육에도 힘써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4.1.2 교사 설문지 분석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문화인식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의 문화인식이 학생의 문화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교사에 대한 문화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학생 대상의 설문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에 대한 본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교사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는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1. 교사 기초조사표

1. 영어지도 경력

	0-1	1-3	3-5	5-10	10~
교사 수	6	5	11	12	16
퍼센트(%)	12%	10%	22%	24%	32%

2. 영어권문화에 대한 지식 여부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거의 없다
교사 수	4	20	24	2
퍼센트(%)	8%	40%	48%	4%

3. 영어권문화에 대한 내용을 습득한 경로

	교사 수
신문, 잡지, 인터넷	39
영화, 비디오	25
어학연수, 유학	20
다른 사람으로부터	8
대학, 대학원	7
기타	2

4. 교사 연수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거의 없다
교사 수	5	25	13	7
퍼센트(%)	10%	50%	26%	14%

조사대상 교사들의 중등영어 지도 경력은 1년~10년 이상으로 다양했으며, 1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32%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자가 설문결과를 분석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놀라웠던 결과는 교사들 스스로의 영어권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스스로의 영어권문화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신문, 잡지 혹은 인터넷 등의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과 다른점이 있다면 20명의 교사가 어학연수나 유학등의 직접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대학, 대학원 등의 교육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 대상의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단지 10%의 교사만이 문화교육을 위한 충분한 연수과목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무려 14%의 교사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영어교사들이 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영어교사들에 대한 영어권 문화 연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설문은 중학교 영어선생님들의 영어권문화에 대한 인식과 수업시간에 영어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는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표 12. 영어권문화에 대한 인식 및 교수 실태**

5. 영어권문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국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그 외 (C4)	필리핀
응답 수	210 (42%)	100 (20%)	72 (14%)	54 (11%)	24 (5%)	24 (5%)	16 (3%)

6. 영어권문화를 가르치는 빈도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거의 없다
교사 수	5	25	15	5
퍼센트(%)	10%	50%	30%	10%

7. 영어권문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부분

	교사 수
영어권사람들의 가치관, 태도, 관행 등	39
영어표현(단어)가 가지는 문화적 의미	33
영어권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	32
영어권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제스처)	31
영어권사람들의 문화적 산물	15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0

영어권문화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 역시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미국과 영국, 캐나다등의 Inner Circle 안에 포함되는 국가를 영어권문화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압도적이었다. 교사들에게 영어권문화를 얼마나 자주 가르치냐는 항목에 대해서는 40%의 교사가 부족하거나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이 역시 학생들이 교사에게서 영어권문화의 내용을 배울 수 없었던 상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권문화 수업 시, 영어권 사람들의 가치관, 태도, 관행 등에 관련된 것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외에도 영어 표현(단어 표현)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 영어권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생활 양식, 영어권 사람들의 비언어적 표현(제스처)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특히 영어권문화를 가르치는 빈도에 상관 없이 모든 교사들이 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다음 본 연구에서 중요시 되었던 교과서에 관련된 설문을 교사들에게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교과서와 교과서 내의 문화를 가르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과연 학생들의 지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있는 영어권문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의 교사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24%의 교사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Culture Tip, Culture & Culture 등과 같이 문화적인 면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보통 이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표 13.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어권문화의 내용**

8.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영어권문화의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 수	3	20	15	8	4
퍼센트(%)	6%	40%	30%	16%	8%

9. 교과서에서 문화교육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의 영어권문화의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사 수	2	10	20	10	8
퍼센트(%)	4%	20%	40%	20%	16%

다음으로는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문화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이 생각하는 문화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에 비해 말하기(토론, 역할극)와 쓰기(편지쓰기)영역이 문화교육을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표 14.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표**

10. 문화교육에 사용되는 교수법 및 활동

		4점	3점	2점	1점
10-1	읽기 자료	11 (22%)	17 (34%)	17 (34%)	5 (10%)
10-2	교사의 직접적인 설명	12 (24%)	23 (46%)	13 (26%)	2 (4%)
10-3	그림, 도표제시 후 대화	15 (30%)	25 (50%)	8 (16%)	2 (4%)
10-4	역사적 사실에 대해 토론	8 (16%)	16 (32%)	22 (44%)	4 (8%)
10-5	역할극	18 (36%)	15 (30%)	15 (30%)	2 (4%)
10-6	팝송듣고 빈칸 채우기	4 (8%)	16 (32%)	22 (44%)	8 (16%)
10-7	사이트 제공	17 (34%)	20 (40%)	13 (26%)	0 (0%)
10-8	프로젝트 참여	24 (48%)	19 (38%)	5 (10%)	2 (4%)
10-9	편지 읽고 답장쓰기	7 (14%)	30 (60%)	3 (6%)	10 (20%)
10-10	형성평가 실시	10 (20%)	18 (36%)	17 (34%)	5 (10%)

마지막으로 문화교육을 하는 자료들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 15. 문화교육 자료표**

---

11. 문화교육에 사용되는 자료의 효과성

		4점	3점	2점	1점
11-1	교과서	19 (38%)	22 (44%)	8 (16%)	1 (2%)
11-2	인터넷	18 (36%)	20 (40%)	12 (24%)	0 (0%)
11-3	비디오, CD	36 (72%)	14 (28%)	0 (0%)	0 (0%)
11-4	교사가 제작한 자료	13 (26%)	32 (64%)	4 (8%)	1 (2%)
11-5	TV	28 (56%)	18 (36%)	3 (6%)	1 (2%)
11-6	월어민	26 (52%)	19 (38%)	4 (8%)	1 (2%)

TV나 비디오, CD등과 같은 매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학생들과 일치하지만 교사가 제작한 자료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던 <표 13>에서의 반응과는 달리 여전히 교사들은 교과서를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3 논의

지금까지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 의해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정된 교과서 중 5가지의 교과서를 3개 학년에 걸쳐 분석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과서를 문화소재에 따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요소가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반면, 몇 요소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1회), 영화(1회), 사회제도·규율(0회), 지형·기후(0회), 역사적 발전(0회), 그리고 6번째 카테고리인 ‘기관’에 대해서는 0회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소재가 각 학년별로 위계적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각 학년마다 각각 새로운 소재가 다루어져서 학생들이 새로운 소재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학습이 어렵다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둘째, 교과서를 영어권 문화의 범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과거 영·미 문화 혹은 영어권 문화만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던 경향이 줄어들고, 범문화적인 요소(C5)를

다루려는 노력이 개정된 대부분의 교과서의 특징이었다. C5를 다루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A교과서 1학년의 경우 90%, 2학년의 경우 80%, 3학년의 경우 80%였으며, B교과서 1학년의 경우 80%, 2학년의 경우 70%, 3학년의 경우 70%였다. C교과서의 경우 1학년 86.36%, 2학년 81.81%, 3학년 68.18%, D교과서의 경우 1학년 66.67%, 2학년 83.33%, 3학년 83.33%, E교과서의 경우 1학년 66.7%, 2학년 75%, 3학년 66.7%로 교과서별,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점차 세계화가 되어 가면서 소위 영·미 문화로 여겨지던 C1의 비율이 낮아지고 전 문화적으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영어권문화’에 대해 영·미 문화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과 교사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학생 질문 6번에서 미국이 508표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는 영국(258표), 캐나다(132)표로 C1에 해당하는 국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다. 교사 역시 질문 8에서 학생과 같은 질문을 받았으며, 대답 역시 미국이 210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영국(100표), 캐나다(72)표 순이었다. 즉, 교사와 학생의 의식은 아직 올바른 영어권문화에 부합되지 못함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이제까지 수차례 영어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문화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은 물론, 지금이 어느 때 보다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설문지 분석 결과 실제 수업상황에서는 이러한 점이 여전히 미비함을 볼 수 있었다. 학생 질문지 3번의 질문 ‘학생은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때부터 영어권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약 47%의 학생들은 ‘조금 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심지어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20%,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약 30%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른다’ 혹은 ‘거의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약 90%였으며, 이마저도 대부분의 학생이 신문이나 매스컴, 잡지, 인터넷 혹은 영화나 비디오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질문 5-2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 스스로는 수업시간 내에 영어권 문화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94%인 것에 비해 교사 설문지 2번에서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권 문화에 대한 지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절반가량의 교사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질문 6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영어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도 ‘가끔’으로 대답한 교사가 30%, ‘거의 안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10%에 이르고 있다. 학생들이 미디어 매체를 통해 배우는 영어권문화는 잘못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일단 전문적으로 영어권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문

화교육을 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영어에 대한 동기유발과 실질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문화교육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체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사 모두 영어권문화에 대한 그림이나 도표를 제시하는 방법, 역할극을 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찬성의 의견을 보였고, 팜송 듣고 빈칸 채우기를 하는 방법에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생의 약 66%, 교사의 100%가 비디오, CD, DVD와 같은 매체를 골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문화적인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고, 정보화 사회에 맞추어 교실 수업 역시 멀티미디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때에는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 V.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언어’란 한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의 경험과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언어 속에는 구성원들의 문화적 배경, 사고방식, 생활방식, 사회적 환경, 행동 양식 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영어권나라의 문화가 함께 교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를 통해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가장 수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인 교과서를 소재별, 영어권 국가별로 분석하여 앞으로 영어교사들의 문화교육 지도방향과 향후 개정될 교과서에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반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8번의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따라 현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문화교육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실제적으로 학교 수업시간에는 여전히 문화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 분석을 보면, 교사가 영어권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지 못하며, 문화교육을 하는 횟수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또한 학생 역시 이제까지 영어를 배워오면서 문화교육을 배운 경험에 대해 많지 않다는 의견인 다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영어권문화를 습득하는 경로 역시 교사보다는 매체를 통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장에서 말 한 것처럼, 매체를 통한 문화교육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매체 속의 영어권문화는 왜곡 될 수도 있고, 또한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사춘기인 학생들에게 걸러지지 않은 문화노출은 자칫 영어권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도 있으며, 잘못된 문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교사가 연수나 교육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쌓은 다음,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올바른 영어권 문화 교육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사와 학생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영어권문화를 영·미 문화로만 생각하는 편협한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영어권 문화를 배워야 한다면 그 중요성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Inner Circle(C1)에 속하는 국가들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영어가 국제공통어가 된 만큼 영어를 사용하는 많은 ESL로서의 국가 뿐만 아니라 EFL상황의 나라 역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또한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영어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Inner Circle(C1)에 속하는 국가들만의 언어가 아닌,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공통어로서의 언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 개정된 영어 교과서였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개정된 교과서에서 Inner Circle(C1)에 속하는 국가의 문화 보다는 보편문화(C5)를 다루는 비중이 매우 컸으며, 과거에 비해 C2, C3, C4의 문화 역시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7차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영어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Rivers(1981), Nostrand(1978), Byram(1994)이 제시한 문화 유형과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 한 문화유형을 기준으로 중학교 1학년~3학년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생활이라던지, 학생들의 진로, 여러가지 생활양식들에 대한 부분이 중시된 반면,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알아야 할 ‘사회제도·규율’이라던지, 또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역사적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관들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교과서 개정시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한 요소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설문지를 통해 현재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또한 가장 수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료인 교과서를 소재별, 영어권 국가별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교육이 나아가야 할 효과적인 문화지도와 앞으로의 문화 관련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교과서 중, 5가지 종류를 1학년~3학년 총 15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20여종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서 뿐만 아니라 Activity Book, 교사용 지도서와 학습용 CD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수용 자료 중, 교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에 대한 연구 역시 되어야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로서 타당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각 교과서 별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문화자료에 대해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더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Culture Talk’, ‘Cultures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ultures’등의 이름으로 하여 부록과 같은 개념으로 몇 단원이 끝나면 페이지 매꾸기 식으로 간략하게 문화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다. 하지

만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사가 수업시간에 문화교육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들이 영어권문화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를 교육시키게 하려면 교사에게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영어교사들은 문화교육을 매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부정확 할 수 있으며, 교사가 방대한 자료를 재구성하여 사용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에게 대한 문화지도 방법 및 문화지도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연수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원어민활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전남에는 모든 학교에 원어민교사 수업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배정되어 있다. 대부분 이 시간에는 게임이나, 흥미위주의 수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문화교육적인 측면의 수업으로 이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원어민 교사 본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도 있고, 원어민교사 나라의 문화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사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자료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부록 1> 교육과학기술부 제시 문화 소재 분석 기준

번호	문화 소재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가정 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8	영어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형식에 관련된 내용
9	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10	다양한 문화와 우리 문화의 언어, 문화적 차이에 관한 내용
11	우리 문화와 생활양식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2	공중도덕, 예절,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3	환경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4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5	예술, 문학 등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근로, 진로 문제 등 개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7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8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9	애국심, 통일 및 안보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 <부록 2> 문화소재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 <A교과서 분석 결과>

			A-1	A-2	A-3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4
	1-2	건축물	1			
	1-3	음악			1	
	1-4	언어				
	1-5	음식		1	1	
	1-6	영화				
2. 개인	2-1	가치관		2	2	19
	2-2	진로 . 적성	1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2	1	1	
	2-4	자기소개	1			
	2-5	운동 . 건강		1		
	2-6	정서함양(이야기)	1	2	3	
	2-7	생활습관				
	2-8	위인, 전기			2	
	2-9	탐험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1			8
	3-2	학교생활	2	1	1	
	3-3	직업	1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2	
	3-5	사회 제도 . 규율				
	3-6	고민 . 고민상담				
	3-7	안전 . 안보의식				
	3-8	자원봉사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1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4-4	전통문화 소개				
	4-5	국가 . 도시 소개			1	
	4-6	생활양식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1		9
	5-2	과학자 . 발명(품)		1	1	
	5-3	환경	1	1	1	
	5-4	유기체(동물 . 식물)		2		
	5-5	정보통신				
	5-6	미래사회				
	5-7	우주 . 지구	1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0
	6-2	복지 . 종교단체				
	6-3	공공기관				

<B교과서 분석 결과>

			B-1	B-2	B-3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2		3
	1-2	건축물				
	1-3	음악				
	1-4	언어			1	
	1-5	음식				
	1-6	영화				
2. 개인	2-1	가치관			1	9
	2-2	진로 . 적성			1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1	1	1	
	2-4	자기소개				
	2-5	운동 . 건강		1		
	2-6	정서함양(이야기)		1	1	
	2-7	생활습관				
	2-8	위인, 전기			1	
	2-9	탐험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1	1		10
	3-2	학교생활	2	1		
	3-3	직업			1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1		
	3-5	사회 제도 . 규율				
	3-6	고민 . 고민상담			1	
	3-7	안전 . 안보의식				
	3-8	자원봉사	1		1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7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1			
	4-4	전통문화 소개	1			
	4-5	국가 . 도시 소개	1		1	
	4-6	생활양식		2	1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1	6
	5-2	과학자 . 발명(품)		1		
	5-3	환경	1		1	
	5-4	유기체(동 . 식물)	1		1	
	5-5	정보통신				
	5-6	미래사회				
	5-7	우주 . 지구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0
	6-2	복지 . 종교단체				
	6-3	공공기관				

<C교과서 분석 결과>

			C-1	C-2	C-3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5
	1-2	건축물				
	1-3	음악	1			
	1-4	언어		1	1	
	1-5	음식	1	1		
	1-6	영화				
2. 개인	2-1	가치관	1			14
	2-2	진로 . 적성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3	1	1	
	2-4	자기소개	1			
	2-5	운동 . 건강		1		
	2-6	정서함양(이야기)	1	1	1	
	2-7	생활습관			1	
	2-8	위인, 전기			1	
	2-9	탐험			1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1	2	11
	3-2	학교생활	1	1		
	3-3	직업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1	1	1	
	3-5	사회 제도 . 규율				
	3-6	고민 . 고민상담	1			
	3-7	안전 . 안보의식				
	3-8	자원봉사		1	1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3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1			
	4-4	전통문화 소개				
	4-5	국가 . 도시 소개	1	1		
	4-6	생활양식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7
	5-2	과학자 . 발명(품)		1	1	
	5-3	환경	1		1	
	5-4	유기체(동 . 식물)		1		
	5-5	정보통신	1			
	5-6	미래사회			1	
	5-7	우주 . 지구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0
	6-2	복지 . 종교단체				
	6-3	공공기관				

<D교과서 분석 결과>

			D-1	D-2	D-3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4
	1-2	건축물				
	1-3	음악				
	1-4	언어		1	1	
	1-5	음식			1	
	1-6	영화			1	
2. 개인	2-1	가치관				14
	2-2	진로 . 적성	1	1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1	
	2-4	자기소개	1			
	2-5	운동 . 건강	1	1		
	2-6	정서함양(이야기)	1	3	2	
	2-7	생활습관		1		
	2-8	위인, 전기			1	
	2-9	탐험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8
	3-2	학교생활	1	1		
	3-3	직업	1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1	1	
	3-5	사회 제도 . 규율				
	3-6	고민 . 고민상담				
	3-7	안전 . 안보의식	2			
	3-8	자원봉사			1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11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2	2		
	4-4	전통문화 소개		1		
	4-5	국가 . 도시 소개	1		1	
	4-6	생활양식	1	1	2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1		15
	5-2	과학자 . 발명(품)			1	
	5-3	환경	2	1	3	
	5-4	유기체(동물 . 식물)		1	1	
	5-5	정보통신		1	2	
	5-6	미래사회	1			
	5-7	우주 . 지구		1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0
	6-2	복지 . 종교단체				
	6-3	공공기관				



<E교과서 분석 결과>

			E-1	E-2	E-3	
1. 예술 & 예술품	1-1	예술가 . 예술작품			1	2
	1-2	건축물				
	1-3	음악				
	1-4	언어			1	
	1-5	음식				
	1-6	영화				
2. 개인	2-1	가치관			2	22
	2-2	진로 . 적성				
	2-3	여가활동 . 취미생활	4	3		
	2-4	자기소개	1			
	2-5	운동 . 건강	1	1		
	2-6	정서함양(이야기)	1	2	3	
	2-7	생활습관		1	1	
	2-8	위인, 전기		1	1	
	2-9	탐험				
3. 사회	3-1	가족 . 가족소개	1	1		14
	3-2	학교생활	1			
	3-3	직업				
	3-4	인간관계 . 예의 . 예절	2	3	1	
	3-5	사회 제도 . 규율	1			
	3-6	고민 . 고민상담		2		
	3-7	안전 . 안보의식				
	3-8	자원봉사	1	1		
4. 국가정체성 & 역사	4-1	지형 . 기후				4
	4-2	역사적 발전				
	4-3	국경일 . 기념일 . 축제	1	1		
	4-4	전통문화 소개				
	4-5	국가 . 도시 소개	1		1	
	4-6	생활양식				
5. 과학 & 기술	5-1	과학적 사실		2	1	6
	5-2	과학자 . 발명(품)				
	5-3	환경	1		1	
	5-4	유기체(동 . 식물)				
	5-5	정보통신			1	
	5-6	미래사회				
	5-7	우주 . 지구				
6. 기관	6-1	정부 . 반 정부적 기관				0
	6-2	복지 . 종교단체				
	6-3	공공기관				

### <부록 3> 영어권문화의 범위에 따른 교과서 분석 결과

#### 1. 교과서A 분석 결과

	A-1	A-2	A-3
	빈도 (%)	빈도 (%)	빈도 (%)
C1(Inner Circle)	1 (10%)	- (0%)	- (0%)
C2(Outer Circle)	- (0%)	- (0%)	- (0%)
C3(Korea)	- (0%)	- (0%)	1 (10%)
C4(Others)	- (0%)	2 (20%)	1 (10%)
C5(Cross-Culture)	9 (90%)	8 (80%)	8 (80%)

#### 2. 교과서B 분석 결과

	B-1	B-2	B-3
	빈도 (%)	빈도 (%)	빈도 (%)
C1(Inner Circle)	1 (10%)	1 (10%)	1 (10%)
C2(Outer Circle)	- (0%)	- (0%)	- (0%)
C3(Korea)	1 (10%)	1 (10%)	2 (20%)
C4(Others)	- (0%)	1 (10%)	- (0%)
C5(Cross-Culture)	8 (80%)	7 (70%)	7 (70%)

### 3. 교과서C 분석 결과

	C-1	C-2	C-3
	빈도 (%)	빈도 (%)	빈도 (%)
C1(Inner Circle)	2 (18.18%)	0.5 (4.55%)	0.5 (4.55%)
C2(Outer Circle)	- (0%)	- (0%)	- (0%)
C3(Korea)	0.5 (4.55%)	0.5 (4.55%)	- (0%)
C4(Others)	- (0%)	1 (9.09%)	3 (27.27%)
C5(Cross-Culture)	9.5 (86.36%)	9 (81.81%)	7.5 (68.18%)

### 4. 교과서D 분석 결과

	D-1	D-2	D-3
	빈도 (%)	빈도 (%)	빈도 (%)
C1(Inner Circle)	2.5 (20.83%)	0.5 (4.17%)	- (0%)
C2(Outer Circle)	- (0%)	- (0%)	- (0%)
C3(Korea)	1.5 (12.5%)	1 (8.33%)	1 (8.33%)
C4(Others)	- (0%)	0.5 (%)	1 (8.33%)
C5(Cross-Culture)	8 (66.67%)	10 (83.33%)	10 (83.33%)

## 5. 교과서E 분석 결과

	E-1	E-2	E-3
	빈도 (%)	빈도 (%)	빈도 (%)
C1(Inner Circle)	0.5 (4.17%)	3 (25%)	0.5 (4.17%)
C2(Outer Circle)	- (0%)	- (0%)	- (0%)
C3(Korea)	2.5 (20.83%)	- (0%)	3 (25%)
C4(Others)	1 (8.33%)	- (0%)	0.5 (4.17%)
C5(Cross-Culture)	8 (66.7%)	9 (75%)	8 (66.7%)



--	--	--	--	--	--	--	--	--	--

7. 다음은 수업시간에 교과서 내의 문화적인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입니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4점을, 그렇지 않으면 1점에 표시해 주세요.

1	영어권문화에 관한 사실정보를 영어로 제공하여 읽게 한다.	4	3	2	1
2	영어권문화에 관한 사실정보를 교사가 직접 설명한다.	4	3	2	1
3	영어권문화에 관한 그림이나 도표를 제시하여 대화하게 한다.	4	3	2	1
4	영어권 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4	3	2	1
5	각자 역할을 정해 역할극을 해보게 한다.	4	3	2	1
6	유명한 팝송을 듣고 빈칸 채우기를 한다.	4	3	2	1
7	영어권문화를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한다.	4	3	2	1
8	개인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한다.	4	3	2	1
9	영어로 된 편지를 읽고 답장하는 편지를 써보게 한다.	4	3	2	1
10	영어권문화에 대한 수업 후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4	3	2	1

8. 다음은 영어 수업에서 문화교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입니다. 다음의 방법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4점을, 그렇지 않으면 1점에 표시해 주세요.

1	교과서	4	3	2	1
2	인터넷	4	3	2	1
3	비디오, CD 등의 매체	4	3	2	1
4	교사가 제작한 자료(프린트, 자료)	4	3	2	1
5	TV 프로그램	4	3	2	1
6	원어민의 묘사, 설명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다.				
2	영어권문화에 관한 사실정보를 교사가 직접 설명한다.	4	3	2	1
3	영어권문화에 관한 그림이나 도표를 제시하여 대화하게 한다.	4	3	2	1
4	영어권 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4	3	2	1
5	각자 역할을 정해 역할극을 해보게 한다.	4	3	2	1
6	유명한 팝송을 듣고 빈칸 채우기를 한다.	4	3	2	1
7	영어권문화를 알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한다.	4	3	2	1
8	개인이나 그룹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한다.	4	3	2	1
9	영어로 된 편지를 읽고 답장하는 편지를 써보게 한다.	4	3	2	1
10	영어권문화에 대한 수업 후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4	3	2	1

11. 다음은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영어 수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다음의 방법들이 학생들의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4점을, 그렇지 않으면 1점에 표시해 주세요.

1	교과서	4	3	2	1
2	인터넷	4	3	2	1
3	비디오, CD 등의 매체	4	3	2	1
4	교사가 제작한 자료(프린트, 자료)	4	3	2	1
5	TV 프로그램	4	3	2	1
6	원어민의 묘사, 설명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 참고문헌

- 곽정순. (1993).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적 소재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 활동,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광주: 한솔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외국어과 교육과정( I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별책 14]
- 박미란. (2010).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9종 교과서의 문화 소재 분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주.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문화 소재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희. (2010). *중학교 영어교과서에 반영된 문화내용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혁.민주경 (2005). *한국 중등영어 교사와 영미문화 학습내용의 체계성 및 다양성 연구*. 『영어와 언어학』, p.581-608.
- 채지영. (2004).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을 통한 문화 지도 방안*. 『글로벌영어교육』, 9(2), p.21-46.
- 최광화. (2010).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문화 내용 분석 연구 :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ks. (1991).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Brake, T., D. M. Walder and T. Walker. (1995). *Doing business internationally: The guide to cross-cultural success*. New York: McGraw-Hill.
- Brown, H. D. (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 Cliffs. NJ: Prentice Hall, Inc.
- Byram, M. (1989).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Ltd.
- Byram, M., & Morgan, C. (1994).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and Cultur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Ltd.
- Chastain, Kenneth. (1976).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y to practic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Freire, P. (1973).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New York: Seabury.
- Giroux, H. A. (1988). *Teachers as intellectuals: Toward a critical pedagogy of learning*. South Hadley, MA: Bergin and Garvey.
- Hendon, U. S. (1980). *Introducing culture in th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class*. *Foreign Language Annals*, 13, 191-199.
- Jeperson, O. (1956). *How to teach a foreign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Krasnick, H. (1984).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ultural competence*. TESOL. '83. Washington D. C.: TESOL.
- Kramsch, C. J. (1997). *Culture and Constructs: Communication Attitudes and Values in the Foreign Language Classroom*. In Heusinkveld, P. (Ed.), *Pathway to Culture*. Yarmouth, ME: International Press.
- Levine, D. R., Baxter, J. and McNulty, P. (1987). *The Culture Puzzl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 Belmont, CA: Wadsworth.
- Moran, P. R. (2001).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Boston: Heinle & Heinle.
- Nostrand, H. L. (1978). The "emergent model" applied to contemporary France. *Contemporary French Civilization* 2(2): 277-294.

- Pinker, S. (2007). *The Language Instinct: How the Mind Creates Language*.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 Rivers, W. M.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eelye, H. N. (1974). *Teaching culture*. Lincolnwood, IL: National Textbook Co.
- Seelye, H. N. (1981).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s*. Lincoln Wood, Illinois: National Text Company.
- Weaver, G. R. (1993). Understanding and coping with cross-cultural stress.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참고문헌-분석 교과서

-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 호, 이선정. (2008). *Middle School English 1*, (주)지학사.
- 이다미, 김경환, 장영준, 한 호, 이정화, 고미라, 이수열. (2009). *Middle School English 2*. (주)지학사.
- 이다미, 이정화, 장영준, 한 호, 홍영예, 고미라, 최문영. (2010). *Middle School English 3*. (주)지학사.
- 장영희, 정소영, 이경태, 최종석, Mark Brown. (2008). *Middle School English 1*. 능률교육.
- 장영희, 정소영, 이경태, 이정은, 김윤경, William Roszell. (2009). *Middle School English 2*. 능률교육.
- 장영희, 최동석, 이석영, 이현숙, 김소영. (2010). *Middle School English 3*. 능률교육.
-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서령, 김현숙. (2008). *Middle School English 1*. 천재교육.
-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서령, 김현숙, Choi Jin H. (2009). *Middle School English 2*. 천재교육.
- 김덕기, 안병규, 오준일, 신인숙, 김서령, 김현숙, Choi Jin Hi. (2010). *Middle School English 3*. 천재교육.
- 김임득, 고경석, 이병춘, 김기호, 이희경, 이경만, 우동하, Peter S. Sylvestre. (2008). *Middle School English 1*. (주)교학사.
- 김임득, 고경석, 이병춘, 김기호, 이현주, 박남지, 송제훈, 장은경, 김현화, 김영선, Sharp William Edward. (2009). *Middle School English 2*. (주)교학사.
- 김임득, 이병춘, 김기호, 이현주, 박남지, 송제훈, 장은경, 김현화, 김영선, 김정선, 공재순, 김재령, 차은식, Sharp William Edward. (2010). *Middle School English 3*. (주)교학사.
- 이기정, 홍민표, 신문섭, 김태용, 김나해, 이윤희. (2008). *Middle School English 1*. 비상교육.
- 이기정, 홍민표, 신문섭, 김태용, 김나해, 이윤희. (2009). *Middle School English 2*. 비상교육.
- 이기정, 홍민표, 이용주, 김나해, 이윤희. (2010). *Middle School English 3*. 비상교육.